

## 경기도

## 축산 방역분야에 214억원 투입

경기도는 지난해 사업비 177억원보다 37억원(20%)이 늘어난 214억원을 올해 축산 방역분야에 투입한다.

지난 1월 21일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등 축산 방역분야에 총 21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세부사업으로 방역 살포기 등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농가 방역약품 공급, 소독방제차량 지원 등에 64억원을 투자한다.

또 38억원을 들여 고병원성 AI와 소브루셀라병, 소결핵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송아지 설사와 돼지열병, 저병원성 AI 등에 대비해 72억원을 투자, 예방접종 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유기동물 처리와 동물등록, 동물복지센터 건립 등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해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광주시, 축산농가 톱밥 등 지원

축산농가 대부분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입지한 광주시가 축산농가의 부담과 수질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톱밥공급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1일 광주시, 광주축협,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5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축사 및 운동장 바닥 깔짚용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 한해동안 127농가에서 2천 360여톤의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데 들어간 2억2

천만원의 절반인 1억1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사용 수분조절재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광주시는 2009년 사업 지원대상을 소, 돼지 사육농가에서 양계(산란계, 육계) 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지원이 농가부담을 줄이고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 돼지, 닭 등 축사에 넣어 준 톱밥은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가축의 질병예방과 축산분뇨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 고양시 일산동구, 축산농가에 톱밥·왕겨 지원

고양시 일산동구는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 톱밥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월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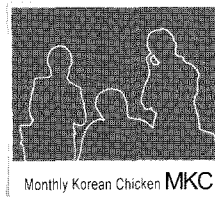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며 가축 위생관리 및 축사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톱밥을 사용하는 농가면 신청 가능하다.

톱밥 5톤 차량 한 대 가격(36만원)의 50%를 지원하며 다만 기준가격 초과 시에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닭, 오리 사육농가는 왕겨구입도 가능하며 농가별 최대 1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시청 농업정책과(☎031-8075-2810)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031-900-6494)로 하면 된다.

## 동두천시, 겨울철 AI 예방활동 강화

동두천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와 신천 주변 철새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을 한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공무원 3명과 수의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예찰반을 편성했다.

예찰반은 주 1회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에 전화로 폐사율 증가, 산란율 감소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 농가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자체 예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시청 가축방역대책상황실(☎ 031-860-2410)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축사 소독 장비 가동,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점검, 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배부 등도 실시한다.

## 강원도

###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사업에 71억원 투입

강원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6억5천만원이 증액된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도 높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안정적인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필수·선결 조건일 뿐만 아니라, 명품화된 강원축산의 이미지 유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 주요 가축질병 발생 및 만연 방지를 통한 강원축산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먼저,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매우 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일반 가축 질병의 발생과 만연 방지를 위

한 가축방역사업으로서, 송아지설사병, 돼지열병, 닭 마이코플라스마병 등 축종별 15종의 질병에 대한 예방약품 공급, 주사·시술지원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브루셀라병, 결핵병,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한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검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항원·항체검사, 돼지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송아지 설사병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투여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신속한 현장방역을 위한 기동력 확보를 위해 방역기동차량과 축사 등 대단위 면적의 소독에 활용해 오던 소독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배치해 나가기로 했다.

가축방역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국·도비 예산은 상반기 중에 모두 배정하고, 민·관 공동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주사, 농장 간 차단방역 실시, 예찰활동 및 채혈 등 방역현장은 농가 또는 민간방역 단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며, 행정에서는 예방약의 적기 공급, 질병 감염축 색출 등 현장의 지원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 춘천시, 명동 닭갈비촌 새단장

춘천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인 명동 닭갈비촌 골목 간판이 새롭게 단장된다.

지난 1월 13일 춘천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올해 2억원을 들여 닭갈비 정비사업을 벌인다.

명동 닭갈비 골목은 일본 관광객 등 국내외 단골이 많이 찾는 명소이나 그동안 무질서한 간판으



## 사·도·소·식

로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심어왔다.

충천시는 38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고 명동 입구와 브라운5번가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 천안시, 가축방역 사업에 7억8천여만원 투입

충남 천안시는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 7억8천여만원을 들여 사육 가축에 대한 예방주사와 검사, 투약 등 연중 차단방역 시스템 등을 가동한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이번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은 ▲소는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닭 뉴캐슬병 ▲개 광견병 등이다.

천안시 측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농가 예찰과 철새 유입 차단, 차량소독시설 운영, 방역통제소 등을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별 분담공무원 지정으로 임상 예찰과 순회소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홍성군, 축산사업에 138억여원 조기 집행

홍성군은 지난 1월 9일 축산회관에서 2009년도 축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낙농사업 활성화 그리고 사료가격 안정화를 골자로 2009년도 축산사업 73건에 약 138억원을 조기에 집행

한다고 밝혔다.

시,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사 10개소에 안개분무기시설 지원, 닭 뉴캐슬병 및 감보로병 백신(4,705,000수) 보급 등 방역과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과 배합사료 값의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사료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NTB주와의 MOU 체결로 사료작물인 옥수수의 안정적인 유입이 가능해졌다.

### 충청북도

#### 충주시, 축수산 경쟁력 강화에 58억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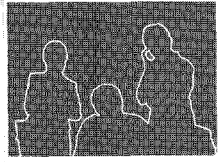
충주시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수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고 지난 1월 13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비를 가축전염병예방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한우, 젓소, 돼지, 닭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15억7천5백만원이 투자되고, 가축방역에 7억2천6백만원이 쓰인다. 또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에 10억3천6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5억6천4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4억9천3백만원, 내수면 어업활성화 사업에 10억6천4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충주지역에는 2008년 12월 현재 한·육우 2만3천384마리, 젓소 1천585마리, 돼지 6만4천488마리, 닭 346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 청주시, 친환경 무항생제사육 지원

청주시는 축산물 수입확대 및 사료 값 상승, 국내 소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모두 21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올해 친환경무항생제 사육지원 6천만원, 조사료생산지원 1억6천만원, 생산자단체 한우고기 직판장 지원 5천만원, 농가특별사료비 융자금 9억 7천만원,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 1천만원, 가축 방역사업비 2억4천만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무항생제 사육지원 사업은 항생제 대신 친환경 면역증강물질을 투여하는 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축방역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 도래지인 무심천 주변에 대해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부루세라 근절을 위해 소사육 농가에 대해 일제 검사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경상남도

### 하동군, 가축전염병 없는 원년 만들기

하동군이 가축전염병 없는 깨끗한 사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일제 축사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특히 2009년을 가축 전염병 없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 소독약품 및 운영비 2억2천만원을 확보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축사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깨끗한 사육환경 조성에 야심찬 각오를 다진다.

군은 지난해 중국 등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으나 검문소 검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을 완전 차단해 한 건의 악성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을 만들었다.

군은 올해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과 돼지 500두 미만, 닭 3만수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공동 방제단을 편성, 소독을 지원하고 규모이상 농가는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으로 연간 20회를 실시하고 3월에서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13회를 실시한다. 하지만 하절기인 7월과 8월은 소독효율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 경상북도

###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위해 930억원 투입

경북도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축산물 소비위축과 생산비 증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축산정책 목표를 '위기에 대응한 안정성장 기반확보'에 역점을 두고 9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8일 밝혔다.

경북의 축산업 비중은 한우가 52만8천두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 젓소 4만3천두 3위, 돼지 141만3천두 3위, 닭 2천544만수 3위 등 전국 최대의 축산 집산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 사·도·소·식

전면 재개되고 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류 등 각종 수입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률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국제곡물이 폭등으로 인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산지 가축시세 하락 등의 악재로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축산분야 사업비를 지난해 644억원 보다 40% 많은 930억원을 책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품한우 광역브랜드화, DNA검사 등 산업화와 유통 투명화사업에 7억원 등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총 310억원, 낙농·양돈·양계산업에 66억원, 마필·양봉 등 기타가축 육성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한편, 차단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가축방역 사업에도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

#### 진도군, 축산 경쟁력 강화에 총력

진도군은 축산농가들이 빠른 기간 내 위기를 극복토록 축산분뇨처리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난 1월 27일 밝혔다.

분야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3개 사업 1억2천만원, 진도 한우·돼지 경쟁력 강화 선진 축산체계 구축 10개 사업에 6억6천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7개 사업에 5억3천만원 등이다.

특히 군은 청보리, 건초, 짚 등 양질의 섬유질이 많은 사료 재배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상설 부정축산물 신고센터와 시민 명예감시원을 위촉, 민·관 합동 축산물 안전 감시망을 정착시키기 위해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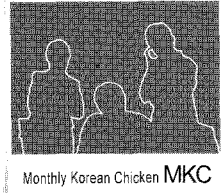
#### AI 예측방어 체계 구축 추진

전라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측방어'를 위해 주체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올해를 'AI 청정지역(AI free-zone) 원년'의 해로 정하고 농가, 관련단체, 행정 등 방역 주체별 강도 높은 쌍끌이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 향후 AI에 대한 '예측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도는 AI 예측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 취약지역 ▲가금류 수송차량 ▲재래시장 닭·오리 불법 도축 ▲가금류 사육농가 등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방역 주체별 역할 분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소독 등 차단방역의 생활화 ▲관련 협회는 '축사내부 출입시 신발 갈아신기 운동' 전개 ▲시·군은 농가 홍보·지도 및 축산관련 시설 등 주기적 점검 ▲축산위생연구소는 철새분변 및 사육 닭·오리에 대한 분기별 사전검색 등의 활동을 분담해 추진키로 했다.



도 방역관계자는 “전북이 AI 청정지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단체·행정의 유기적인 방역활동과 차단방역의 생활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 숙주가 광범위한 뉴캐슬병은 심할 경우 거의 100% 폐사율을 보이는 제1종 가금전염병으로 올해 1월 현재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청정국으로 인증됐으며 아시아에는 아직 없는 상태다.

## 제주특별자치도

### 올해 아시아 최초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추진

제주도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가금전염병인 ‘뉴캐슬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가금전염병 청정화 계획에 따라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뉴캐슬병을 검진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올해 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가금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가금전염병 청정지역은 과거 3년간 뉴캐슬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선포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이 질병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도 청정지역 선포를 위한 기본요건이 갖춰진 상태다.

도는 올해 말 가금전염병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을 실시한 뒤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6개월 뒤에는 재확인 작업을 거쳐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고해 국제인증도 받을 계획이다.

도는 1999년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2003년 소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가금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면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더욱 높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닭, 칠면조, 메추리, 비둘기, 꿩, 까마귀, 앵무새

### 축산업 2·3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업을 2·3차 융·복합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177개 사업에 총 914억원을 축산업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중점 시책사업으로는 2·3차 융·복합사업 추진, 제주청정축산물 유통특구 지정, 돼지고기 대일 수출 및 가금전염병 청정화지역 선포, 축종별 여건과 특성 극대화, 녹색축산사업장 조성기반 구축 등이다.

제주도는 우선 축산물 유통 특구화를 위해 20개 사업에 50억1천2백만원을 투입, 보들걸 제주한우와 제주토종닭 특구를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우유, 치즈, 계란, 말고기, 흑돼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 대일 수출 및 가금전염병 청정화지역 선포를 위해 26개 사업에 28억8백만원을 투자하고 축종별 여건과 특성 극대화를 위해 70개 사업에 293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초지·사료작물·청보리 재배 확대, 양돈 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 추진 등 녹색축산사업장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 38개 사업에 345억8천만원, 그리고 종합자금 융자지원 등 23개 사업에 196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시·도·소·식

## AI 발생에 따른 방역시스템 강화


제주도는 지난 1월 27일 최근 중국에서 5명이 AI 인체감염으로 사망하고, 태국·홍콩 및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고병원성 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강화로 해외 AI 발생 및 유사시에 대비한 AI 비상방역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비상방역체제 방역조치사항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설치 운영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한층 강화해 설 연휴·공휴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전염병의 심층 신고 접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또 '제주형 초강도 AI 방역매뉴얼 지침'에 의한 공·항만 방역관리 강화로 제주항에서 물동량이

많은 4부두와 6부두 소독시설 풀가동 운영으로 고병원성 시 방역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및 모이주기 금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조류 검사 의뢰 등 신속한 시 초동 대응대책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AI 바이러스의 매개체와 전염원의 주범이 되는 차량소독 및 농장소독 의무화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및 가축운송차량 등 소독관련 규정 위반신고제 운영 홍보 강화(신고포상금 건당 20만원), 도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농장 근로자 특별 관리로 방역준수 교육 및 외국인 모임자제를 요청하는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 '월간 닭고기' 광고게재 안내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국내 계육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닭고기 전문지입니다.  
 '월간 닭고기'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께서는 편집부(031-707-5722~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닭고기 지면별 광고금액〉 [2009년 2월 현재]

광고 게재면	광고료(원)	비고	
표2(표지 2면)	900,000	칼라 ※ 부가세 없음. ※ 연간 계약시 광고료 조정 가능 ※ 광고게재시 책 증정	
표3(표지 3면)	800,000		
표4(표지 4면)	1,000,000		
표2연결면(대면)	700,000		
표3연결면(대면)	600,000		
내지	500,000		

**광고문의** (031)707-5722~4 '월간 닭고기' 편집부